

한일 학술논문 서론의 텍스트 구조 분석*

- 국어학 분야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

임정아**
dlawjddk117@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3 분석자료 |
| 2. 선행연구 | 4. 결과 및 고찰 |
| 2.1 논문 서론의 텍스트 구조 연구 | 4.1 한일 학술논문 서론의 구조 유형 |
| 2.2 논문 서론의 대조 연구 | 4.2 한일 학술논문 서론의 구조적 특징 |
| 2.3 본고의 입장 | 4.2.1 도입부 |
| 3. 연구방법 | 4.2.2 종결부 |
| 3.1 본고에서의 서론의 정의 및 범위 | 5. 마치며 |
| 3.2 분석방법 및 분석 틀 | |

主題語: 일본논문(Japanese article,), 학술논문(Article,), 논문서론(Introduction), 학술적 글쓰기(Academic Writing), 텍스트 구조(Text Structure)

1. 들어가며

논문을 작성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서론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서론은 논문의 본문 첫 부분인 만큼, 논문의 독자들은 해당 논문에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자신이 읽을 가치가 있는지를 서론을 통해 판단한다. 그렇기에 논문의 필자들은 논문 서론에서 자신의 논문과 연구를 독자에게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서론은 논문 본문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언어에 따른 논문 서론 구조의 차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Frascini(2010)은 한국의 한국어 교육 분야 논문 15편,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어 교육 분야 논문 15편을 비교 분석하여 그 구조적, 구성적인 차이에 대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그 결과,

* 이 연구성과는 2021년도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본고는 필자의 석사 논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한국 논문의 경우, 연구 영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배경 정보를 제시하는 등 한 가지 단계를 통하는 반면, 이탈리아 논문의 경우, 배경 정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제를 일반화함으로써 연구 영역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논문의 경우, 이탈리아 논문에 비해 연구 방법이나 논문의 구성을 설명하는 논문의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 밖에도 탄나나(2019)은 한국의 한국어 교육 분야 25편, 중국의 언어 교육 분야 논문 25편을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중국어 논문이 한국어 논문에 비해 ‘연구 주제의 중요성 - 선행연구의 부족함 - 연구의 목적을 밝히기’ 순서로 작성되는 경향이 강하며, 한국의 논문 서론은 연구 목적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논문의 서론은 언어나 문화권에 따라 구조나 내용 구성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국어학 분야 학술 논문의 서론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고, 그 차이에 대하여 고찰한다. 각국의 ‘국어학’은 그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장 그 언어에 맞춰 논문을 작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향이 비교적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한국어학과 일본어학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틀로는 서론 텍스트 구조 분석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wales(1990)의 CARS 모형을 바탕으로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한국과 일본의 서론 텍스트 구조의 양상 차이는 각 언어권의 사람들이 어떤 학술 텍스트 구조를 더 선호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언어에 따른 학술적 텍스트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각 언어 교육 분야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2. 선행연구

논문 서론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서론의 텍스트 구조에 주목한 연구, 분야에 따른 서론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 언어 혹은 문화권에 따른 서론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논문 서론의 텍스트 구조에 주목한 연구로서 Swales(1990), Bunton(2002)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언어 혹은 문화권에 따른 논문 서론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로는 Cmejrkova(1996), Duszak(1994), Frascini(2010), Taylor, Tingguang(1991), 탄나나(2019) 등을 들 수 있다. 분야에 따른 서론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는 木本(2006), 佐藤 외 5명(2013)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김미경(2007), 전경선(2012) 등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텍스트 구조를 학습시키는 것이 작문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는 등 교육면에서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2.1 논문 서론의 텍스트 구조 연구

먼저 서론의 텍스트 구조를 장르 분석적 시각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Swales(1990)을 들 수 있다. Swales(1990)은 미국 원어민이 작성한 경성 과학 분야¹⁾ 논문 16편, 사회 과학 분야 논문 16편, 보건, 생명과학 분야 논문 16편, 총 48편의 논문 서론을 분석하여 그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였다. 구조는 1. 연구영역 정립, 2. 선행연구 요약 (a. 선행연구 부족 지적 b. 반문 혹은 c. 연구 확장 가능성 제시) 3. 본 연구 준비하기, 4. 해당 연구 도입 4개의 이동마디²⁾ (move)로 나누었다. 그 후, Swales(1990)는 타 연구를 참고하여 학술 논문이 ‘1. 논문에서 다룰 영역 확정’, ‘2. 연구되어야 할 테마나 새로운 시점 지적’, ‘3. 자신의 논문 위치 설정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구성 설명 등)³⁾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도식화한 CARS 모형을 발표하였다.

Swales(1990)가 CARS 모형을 발표한 이후, 서론 텍스트 구조 연구에서 CARS 모형은 대표적인 분석 틀로서 자리 잡아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박은선(2006)을 들 수 있다. 박은선(2006)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작성한 학위논문 25편과 한국어 학습자가 작성한 한국어 학위논문 25편의 서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위 논문 서론의 구조를 도식화하여 Swales(1990)의 CARS 모형을 한국어교육 분야에 맞춰 수정한 모형을 정립하였다.

2.2 논문 서론의 대조 연구

서론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각 언어나 문화권에 따라 서론의 구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언어 혹은 분야에 따른 서론의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문화권에 따른 서론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로는 Taylor and Tingguang(1991)을 들 수 있다. Taylor and Tingguang(1991)은 서양 논문 서론에서는 연구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중국 논문의 경우, 서론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적은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Taylor and Tingguang

1) 원문은 the hard science. the hard science에는 물리학, 화학, 분자생물학 등이 속한다. 본고에서의 “경성과 학”이란 명칭은 마시모 피글리우치(2012)에 의한 번역을 따른 것이다.

2) Swales(1990)에서 사용된 move와 step의 번역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박은선(2006), 전경선(2012)에서 사용된 ‘이동마디’, ‘단계’를 사용하였다.

3) Swales(1990)의 CARS 모형에 사용된 각 이동마디의 명칭은 杉田(1997)에 의한 일본어역을 필자가 한국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1991)은 서양은 체계적인 설명에 토론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기에 연구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거나 연구 주제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ee(2001)는 CARS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작성한 논문 서론과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문 서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론의 길이나 선행연구의 수, 해당 연구나 논문에 대한 강조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Lee(2001)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한국어 모어 화자 논문 서론에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적은 것에 대하여 Taylor and Tingguang(1991)과 비슷한 설명과 함께 한국어 모어 화자와 영어 모어 화자가 생각하는 논문 서론의 기능이 다를 것이라 추측하였다.

2.3 본고의 입장

위와 같이 논문의 서론 텍스트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각 연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논문의 수가 15~25편이므로, 해당 언어나 분야 논문의 보편적인 경향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논문의 서론 텍스트 구조를 비교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어학 분야 학술논문 각 100편씩을 수집하여, 논문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고, 각 이동마디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올바른 논문 작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Swales(1990), 박은선(2006) 등의 선행연구나 논문 참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논문의 구조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연구도 아니다. 본 논문의 필자는 3년간 논문 서론을 분석하며, 같은 언어권이더라도 분야나 논문의 종류, 분량이 다를 경우, 논문의 구조와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논문 서론에 관한 연구의 발판으로서 먼저 국어학 분야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방법

3.1 본고에서의 서론의 정의 및 범위

본고에서는 ‘서론’을 논문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시되는 본문으로 정의하고, 한국 논문의

경우, ‘들어가는 말’, ‘서론’, ‘머리말’ 등의 표제로 시작되는 본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일본 논문의 경우, ‘はじめに’, ‘序論’, ‘序’ 등의 표제 하에 시작되는 본문을 대상 범위로 한다. 또한, 논문에 따라서는 서론을 여러 절로 나누어 구성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서론’ 속에 ‘1.1. 문제제기’, ‘1.2. 대상의 정의’ 등과 같은 구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문도 서론으로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복수의 절로 나누어진 서론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3.2 분석방법 및 분석 틀

본고에서는 Swales(1990)의 CARS 모형을 바탕으로 서론의 구조를 크게 3개로 나누어 분류한다.

<표1> 한일 학술논문 서론에서 나타나는 이동마디 및 단계4)

이동마디 1. 연구 대상 제시	
A	연구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
B	연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진술
C	연구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이동마디 2. 선행연구와 그에 대한 의견	
1	선행연구 검토 및 소개
2A	선행연구에 대한 반론
2B	선행연구 부족 지적
2C	선행연구에 대한 반문, 의문 제기
2D	선행연구 존중, 계승
이동마디 3. 본 연구에 대한 언급	
1A	연구 주요 내용 제시
1B	연구 목적 제시
2	문제제기
3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설명
4	연구 결과 제시
5	본 연구의 의의
6	논문의 구성 제시
7	기타 (방침, 필자의 입장, 전망 등)

4) Swales(1990)의 CARS 모형을 바탕으로 필자가 수정.

첫 번째 이동마디로 ‘연구 대상 제시’, 두 번째 이동마디로 ‘선행연구와 그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언급’이다. 이 세 가지 분류를 내용 성격에 따라 나누어 총 15가지의 단계(step)로 분류하였다. 그 분류를 <표1>에 나타낸다.

<표1>은 Swales(1990)의 CARS 모형을 필자가 수정한 분류이다. ‘이동마디 3-4 연구 결과 제시’, ‘이동마디 3-7 기타’ 등은 Swales(1990)이나 박은선(2006)에 언급되지 않았던 단계였다. 그러나 국어학 분야 논문의 경우, 서론에서 미리 연구 결과를 제시하거나 해당 논문에서 어떠한 방침을 취하는지, 표기 방식, 용어의 정의 등을 밝히는 논문들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단계에 추가하여 별도의 분류로 한다.

서론의 본문은 문장 단위로 나눈다. 각 문장이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표1>을 기준으로 분류 후, 그 분류를 바탕으로 텍스트 구조를 분석한다.

3.3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논문과 일본어 논문의 경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한국어학과 일본어학의 학술논문 각 100편씩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분석 대상 논문의 종류는 학술논문으로 제한하고, 한국어학 논문으로는 한국의 국어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국어학’ 학술지에서 한국어학에 관련된 논문 총 100편을 수집하여 조사 대상으로 한다. 일본어학 논문으로는 일본어 학회 (구 ‘국어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日本語の研究’ 학술지에서 일본어학 관련 논문 총 100편을 수집하여 조사 대상으로 한다.

작성 시기에 따라 논문 작성 방식의 경향이 변화할 것을 고려하여 수집할 당시(2019년)로부터 가장 최근에 발행된 최신 논문 100편을 대상으로 하나, 한국 국어학 학술지가 일본의 일본어학 학술지에 비해 매년 더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어 한국 논문의 경우, 2019년부터 2016년 사이의 논문을, 일본 논문의 경우, 2019년부터 2009년 사이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서론의 본문만으로 하며, 직접 인용문, 간접 인용문, 괄호 속 문장, 각주, 예문, 표나 그림 속 텍스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4. 결과 및 고찰

4.1 한일 학술논문 서론의 구조 유형

먼저 한국 논문 서론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2>는 한국 논문 서론의 구조 유형과 각 유형의 채용 비율을 보기 쉽게 정리한 표이다.

<표2> 한국 학술논문 서론의 구조

번호	구조	논문수(%)
(1)	1→2→3	20 (20%)
(2)	1→3	13 (13%)
(3)	3→1→2→3	11 (11%)
(4)	3→1→3	8 (8%)
(5)	1→3→1→3	7 (7%)
(6)	1→3→2→3	6 (6%)
(7)	2→3	3 (3%)
(8)	3	3 (3%)
(9)	1→3→1→2→3	3 (3%)
(10)	2→1→2→3	2 (2%)
(11)	1→2→1→2→3	2 (2%)
(12)	1→2→3→2→3	2 (2%)
(13)	기타	15 (15%)
합계		100 (100%)

한국 국어학 분야 학술논문 서론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구조는 (1) 1→2→3, 즉, 연구 대상을 먼저 제시한 후, 선행연구에 대해 언급하고, 그 후에 해당 논문에 대해 설명하는 구조로, 전체의 2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1) 1→2→3 구조 유형은 2장에서 설명하였던 Swales(1990)이 제시한 CARS 모형과 같은 구조이다. 이로써 한국의 국어학 분야 학술논문 서론 또한 채용 비율이 20%로 높지는 않지만, CARS 모형의 구조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논문의 서론 구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3) 3→1→2→3 구조인데, 이 구조는 서론의 도입부, 즉, 서론의 첫 문장에서 해당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연구 목적을 언급한 후, CARS

모형과 같은 순서를 취하고 있는 구조이다. 한국 논문의 이러한 경향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나 박은선(2006)가 제시한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논문 서론 부분의 일반화된 모형’에서는 이동마디 1의 단계 2에 ‘연구의 목적 제시하기’를 두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어 논문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이동마디 3, 그중에서도 ‘연구 목적 제시’로 서론을 시작하는 논문이 다른 언어 논문에 비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Taylor and Tingguang(1991)과 Lee(2001)에서 지적하였던 대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 즉, 이동마디 2가 없는 서론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100편 중 33편, 즉, 약 3분의 1 정도의 논문이 서론에서 선행연구의 소개나 지적 등 선행연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논문과 중국 논문의 서론을 분석한 탄나나(2019)에서도 볼 수 있었다. 탄나나(2019)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이동마디 2와 같은 내용이 서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경우, 서론의 바로 다음 장인 논문의 2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33편의 논문 대부분이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은 서론의 다음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선행연구를 언급하지 않는 (2) 1→3 유형이나 서론의 도입부에 연구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 대상을 제시하는 (3) 3→1→2→3 유형의 경우, 완벽하게 CARS 모형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부 특이점을 제외하고서는 CARS 모형의 순서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어학 분야 학술논문 서론도 과반수가 CARS 모형과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동마디 3은 해당 연구에 대한 언급으로, 이동마디 3에는 해당 연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해당 논문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방법, 구성,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논문의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지닌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동마디 3은 한국 논문 전체 100편 중 95편이 서론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 95편 중 95편 모두가 해당 연구의 목적 혹은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연구 목적 제시’ 혹은 ‘연구 주요 내용 제시’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하여 많은 선행연구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연구 목적은 대부분의 논문이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논문에서 이동마디 3은 다른 이동마디에 비해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체 논문의 53%가 이동마디 3을 반복해서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논문의 경우, 이렇듯 이동마디 3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논문은 전체 100편 중 13편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논문의 서론 구조를 살펴보자.

<표3> 일본 학술논문 서론의 구조

번호	구조	논문수(%)
(1)	1 → 2 → 3	36(36%)
(2)	1 → 3	19(19%)
(3)	3 → 1 → 2 → 3	4(4%)
(4)	3 → 1 → 3	3(3%)
(5)	1 → 3 → 2 → 3	6(6%)
(6)	2 → 3	6(6%)
(7)	3 → 2 → 3	3(3%)
(8)	3	2(2%)
(9)	1 → 3 → 2	2(2%)
(10)	1 → 2 → 1 → 2 → 3	2(2%)
(11)	1 → 2 → 3 → 2 → 3	2(2%)
(12)	2 → 3 → 1 → 2 → 3	2(2%)
(13)	기타	13(13%)
합계		100(100%)

일본 논문의 서론 또한 한국 논문의 서론과 마찬가지로 (1) 1→2→3 구조가 가장 높은 비율(36%)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논문 또한 과반수의 논문이 CARS 모형과 일치하는 (1) 1→2→3 구조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던 구조는 (2) 1→3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CARS 모형에서 이동마디 2, 즉,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만이 빠진 구조인데, 일본 논문은 100편 중 25편이 이동마디 2가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한국 논문에 비해 그 수는 적었지만,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나나(2019)는 중국어 논문 25편 중 20편, 즉, 80%가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나머지 5편은 서론의 다음 장에서 선행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 논문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서론에서 선행연구를 언급하지 않았어도 다음 장에서 선행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Taylor and Tingguang(1991)의 지적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 중국의 논문의 서론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유교나 문화권의 특징이 아닌 다음 장에 따로 선행연구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는 학술적 텍스트 구조 양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은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럼 한국과 일본의 서론 구조 유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자세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서론 구조 유형을 <표4>에 나타낸다.

<표4> 한일 학술논문 서론의 구조 유형

(단위 : %)

번호	유형	한국	일본
(1)	1→2→3	20	36
(2)	3→1→2→3	11	4
(3)	1→3	13	19
(4)	3→1→3	8	3
(5)	2→3	3	6
(6)	3→2→3	5	3
(7)	1→3→1→3	7	1
(8)	1→3→2→3	6	6
(9)	1→3→1→2→3	3	2
(10)	1→2→1→2→3	2	2
(11)	2→1→2→3	2	2
(12)	3단독 ⁵⁾	3	2
(13)	1→2→3→2→3	2	2
(14)	1→3→2	/	2
(15)	2→3→1→2→3	/	2
(16)	기타	15	8
합계		100	100

한국 논문 서론에서는 총 29가지의 구조 유형이 발견되었다. 한편, 일본 논문 서론에서는 총 25가지의 구조 유형이 발견되었다. 한국 논문 서론이 일본 논문 서론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었지만, 유형수에 큰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wales(1990)의 CARS 모형과 일치하는 유형인 (1) 1→2→3의 경우, 한국 논문에 비해 일본 논문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한편, 해당 연구의 목적 등 해당 연구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는 유형인 (2) 3→1→2→3 과 (4) 3→1→3 유형의 경우, 한국 논문이 일본 논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말하였듯이 한국 논문의 경우, 서론의 도입부에서 연구 목적에 대하여 언급한 후, 서론의 본문을 시작하는 경향성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5) 3단독은 ‘이동마디 3 본 연구에 대한 언급’만으로 구성된 유형을 의미한다.

4.2 한일 학술논문 서론의 구조적 특징

본 장에서는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 서론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서론의 도입부에 어떤 단계가 등장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차이에 대해서 대조한다. 그다음으로 서론의 종결부에서는 어떤 단계가 등장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서론의 도입부부터 종결부까지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4.2.1 도입부

서론의 첫 문장은 해당 논문 전체의 첫 문장이므로 서론의 구조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첫 문장에 필자가 어떤 내용을 쓰는가에 따라 독자의 논문에 대한 첫인상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서론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단계를 ‘서론의 도입부’로 보고,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의 서론 도입부가 어떤 단계로 시작되는가를 분석하였다.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의 서론 도입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 내용에 따라 유형을 나누면 아래와 같다.

<표5> 한일 학술논문 서론 도입부에 나타나는 단계

(단위 : %)

단계	한국	일본
이동마디 1-B 연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진술	57	75
이동마디 1-A 연구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	/	1
이동마디 2-1 선행연구 검토 및 소개	4	8
이동마디 2-2B 선행연구 부족 지적	1	2
이동마디 3-1A 연구의 주요 내용	9	9
이동마디 3-1B 연구 목적 제시	28	3
이동마디 3-2 문제제기	1	/
이동마디 3-3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설명	/	1
이동마디 3-7 기타 (방침, 필자의 입장, 전망 등)	/	1
합계	100	100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 모두 서론 도입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계는 이동마디 1의 ‘B 연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진술’이었다. 일본 논문은 100편 중 75편이 이러한 연구

대상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었고, 한국 논문은 57편이 이동마디 1-B 단계로 시작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단계는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 모두 같았으나 그다음부터는 차이가 났는데, 한국 논문은 서론의 도입부에 이동마디 3의 ‘1B 연구 목적 제시’가 전체의 28%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던 반면, 일본 논문에서 ‘1B 연구 목적 제시’로 서론을 시작한 논문은 100편 중 3편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논문은 일본 논문에 비해 서론의 도입부에서 연구 목적을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왔다. 한국 서론 도입부에서 나타나는 예컨대 ‘1B 연구 목적 제시’란 예 1)과 같은 문장을 의미한다.

예 1) 이 연구의 목적은 관용표현이 어떤 형식과 의미의 언어 단위와 관련을 맺으며 기억되어 있는지를 연상 표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KR5 : 1)⁶⁾

실제로 예 1)과 같은 문장으로 서론 첫 문장에서 연구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연구 목적을 처음부터 주지시키고, 해당 논문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중심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 밖에도 선행연구 소개나 선행연구 부족 지적으로 서론을 시작하는 논문이 한국 논문은 5편, 일본 논문은 10편 있었는데, 이는 이번 분석 대상이 되었던 국어학 분야 논문의 특성으로 보인다. 국어학 분야 논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던 이동마디 1의 ‘B 연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진술’을 대신하여 여태까지 연구 대상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는 논문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 언급으로 서론을 시작한 논문 중에서도 한국 논문 1편, 일본 논문 2편이 이동마디 2 ‘2B 선행연구 부족 지적’으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데, 서론 첫 문장에서 선행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 예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

예 2) 한국어 연구에서 “구문”은 매우 빈번하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탐구의 대상이 된 적은 드물다. (KR11 : 1)

6) 괄호 안은 논문 식별 번호와 문장 번호를 의미한다. KR은 한국 논문, JP는 일본 논문이며, (KR + 논문 번호(부록 참고) : 문장 번호)를 의미한다. 이하 모든 예문에 똑같이 적용한다.

예 2)가 그와 같은 예이다. 예 2)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적이 많지 않음을 서론 도입부에서 제시함으로써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서론의 첫 문장에서 해당 논문 주제의 독창성과 연구의 가치를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연구의 의의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동마디 2로 서론을 시작하는 논문의 수는 극히 적었지만, 예 2)와 같이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구조라 할 수 있다.

4.2.2 종결부

본 절에서는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 서론이 어떤 단계로 끝나는지 서론의 종결부 단계를 분석, 고찰한다. 본고에서는 서론 종결부도 도입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단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6>에 나타낸다.

<표6> 한일 학술논문 서론 종결부에 나타나는 단계

(단위 : %)

단계	한국	일본
이동마디 1-B 연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진술	2	1
이동마디 2-1 선행연구 검토 및 소개	/	2
이동마디 2-2B 선행연구 부족 지적	/	4
이동마디 3-1A 연구의 주요 내용	29	33
이동마디 3-1B 연구 목적 제시	/	10
이동마디 3-3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설명	4	4
이동마디 3-4 연구 결과 제시	1	1
이동마디 3-5 본 연구의 의의	9	3
이동마디 3-6 논문의 구성 제시	41	19
이동마디 3-7 기타 (방침, 필자의 입장, 전망 등)	14	23
합계	100	100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의 서론 종결부를 분석한 결과, 한국 논문은 7가지의 단계가, 일본 논문은 10가지 단계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논문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한국 논문의 서론 종결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계는 이동마디 3의 ‘6 논문의 구성 제시’였다. 한국 논문 전체 100편 중 41편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논문에서 서론은 본문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서론에서 미리 본문의 구성을 예고함으로써 독자들이 본문에서 어떠한 내용이 어떤 순서로 전개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독자들을 배려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일본 또한 ‘3-6 논문의 구성 제시’로 서론을 마무리하는 논문이 100편 중 19편으로 3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단계였다. 한편, 일본 논문의 서론 종결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계는 이동마디 3의 ‘3-1A 연구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가장 마지막 문장으로 오는 논문은 100편 중 33편으로, 이러한 내용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은 해당 논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다시금 주지시키고,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단계는 이동마디 3의 ‘3-7 기타’로 주로 해당 논문의 방침, 표기 방법 등이 서론 마지막 문장으로 많이 나타났다. 한국 논문 또한 ‘3-7 기타’로 서론을 끝내는 논문이 100편 중 14편으로 종결부에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난 단계였다.

종결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동마디 3의 ‘3-1B 연구 목적 제시’가 일본 논문은 100편 중 10편으로 네 번째로 많이 나타났던 반면, 한국 논문은 단 한 편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4.2.1.의 도입부에서 ‘3-1B 연구 목적 제시’가 100편 중 33편에 나타났던 것을 고려하면, 한국 논문에서 연구 목적은 서론의 첫 문장에는 많이 나타나는 단계이지만, 마지막 문장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1A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한국 논문의 100편 중 29편에서 서론 종결부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목적을 하나의 분류로 하여 분석하였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나눠 분류한 이유이다. 한국 논문의 서론에서 예 1)과 같은 연구 목적 제시는 첫 문장으로서 나타났지만, 마지막 문장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편, 마지막 문장에서는 해당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다시 한번 본고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독자에게 주지시키는 논문들은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한국 논문의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을 2회 이상 제시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연구 목적과 연구의 주요 내용을 나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5. 마치며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어학 분야 학술논문의 서론을 분석하여 그 구조 유형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CARS 모형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한 분석 틀로 구조 유형과 그 특징을

분석한 결과,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 모두 서론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 논문이 각각 33%와 25%로 그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 모두 도입부의 경우, 이동마디1의 '1-B 연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진술' 단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의 서론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1) 전체 구조에 있어서 Swales(1990)의 CARS 모형과 일치하는 유형인 1→2→3 구조 유형의 경우, 한국 논문에 비해 일본 논문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한편, 한국 논문의 경우, 이동마디 3을 서론에 포함시키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이동마디 3을 반복하여 제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 2) 한국 논문(28%)이 일본 논문(3%)에 비해 서론 도입부에서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서론의 종결부에서 연구 목적을 제시하는 한국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이를 통해 한국 논문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서론의 도입부에 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한국 논문은 논문의 구성 제시 단계(41%)가 서론의 종결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일본 논문은 연구의 주요 내용 제시 단계(33%)로 끝나는 논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논문 중에서도 종류는 학술논문, 분야는 한국어학과 일본어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논문의 서론은 그 논문의 분야나 논문의 종류, 작성 시기에 따라 내용의 구성이나 구조적인 경향에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학술지의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논문과 일본 논문의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논문 서론의 보편적인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분야와 다양한 종류의 논문 서론을 대상으로 분석,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미경(2007)「텍스트 구조 학습이 한국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원인-결과, 문제-해결 및 비교-대조 구조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시모 피글리우치(2012)『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부키
- 박은선(2006)「한국어 학위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적 연구: 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한국어교육』17, pp.191-210
- 임정아(2020)「한일 학술논문 서론의 텍스트 비교 분석」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9-47
- 전경선(2012)「장르 중심 교수가 석사학위 논문 서론 쓰기에 미치는 효과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탄나나(2019)「한중 학술논문 서론 텍스트 구조의 장르분석적 연구 - 언어교육 분야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언어학』47, pp.155-181
- 木本和志(2006)「法学系論文の序論に見られる文章構造の分析 - 民法、商法、知的財産権法系論文を対象
に -」『専門日本語教育研究』8, pp.19-26
- 佐藤勢紀子 외 5명(2013)「學術論文の構造型とその分布 - 人文科学・社会科学・工学270論文を対象に -」『日
本語教育』154, pp.85-98
- 杉田くに子(1997)「上級日本語教育のための文章構造の分析 - 社会人文科学系研究論文の序論 -」『日本語教
育』95, pp.49-60
- Bunton, D.(2002)「Generic moves in ph.D. thesis introduction, In J. Flowerdew(Ed.)」『Academic discourse』, pp.57-75
- Cmeirkova, S(1996)「Academic Writing in Czech and English, Academic Writing: Intercultural and Textual Issu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137-150
- Duszak, A(1994)「Academic discourse and intellectual styles」『Journal of Pragmatics』21, pp.291-313
- Fraschini, N(2010)「한국어와 이탈리아어 학술 논문의 텍스트 구조 비교 - 언어 교육 분야 논문의 서론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29, pp.289-316
- Lee, S.(2001), “A study of Korean and English research paper introductions based on Swales’ move analysis.”,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17(2), Association of Korea, pp.23-53
- Swales(1990), 「Genre Analysis :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40-155
- Taylor, G and Tingguang C(1991), 「Linguistic, Cultural, and Subcultural Issues in Contrastive Discourse Analysis:
Anglo-American and Chinese Scientific Texts」『Applied Linguistics』12, pp.319-336

논문투고일 : 2021년 06월 12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7월 14일
 1차 수정일 : 2021년 08월 03일
 2차 수정일 : 2021년 08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8월 20일

<부록1> 한일 논문 서론 전체의 문장수 및 구조

논문번호	문장수	구조	논문번호	문장수	구조
KR1	26	1-2-3-2-3	KR51	28	1-2-3-1-2-3
KR2	26	3-1-2-3	KR52	14	3-2-3
KR3	9	1-3	KR53	16	1-2-3
KR4	7	3-1-3	KR54	18	3-1-3
KR5	30	3-2-3-1-3	KR55	30	1-2-1-2-3
KR6	15	3-1-2-3	KR56	25	3-1-2-3
KR7	7	3-2-3	KR57	9	1-2-3
KR8	18	1-3-2-3	KR58	23	3-2-1-3
KR9	11	3-2-3	KR59	26	1-3-1-2-3
KR10	26	1-2-1-2-3	KR60	12	3-1-2-3
KR11	23	2-1-2-3	KR61	11	1-2-3
KR12	15	1-3-1-3	KR62	8	3-1-2-3
KR13	24	1-3-1-2-3	KR63	7	3
KR14	6	1-3	KR64	32	3-1-3-1-3
KR15	19	3-1-2-3	KR65	9	1-3-1-3
KR16	25	3-1-2-3	KR66	26	1-3-2-3
KR17	19	1-2-3	KR67	47	1-3-2-3
KR18	9	1-2-3	KR68	14	3
KR19	6	1-3	KR69	27	1-3-1-3
KR20	26	1-2-3	KR70	17	3-2-3
KR21	15	1-3-1-3	KR71	26	1-2-3-1-3
KR22	17	1-2-3	KR72	15	3-1-2-3
KR23	16	1-3	KR73	9	1-2-3
KR24	9	1-2-3	KR74	17	3-1-3-2-3
KR25	11	1-3	KR75	25	2-3
KR26	22	1-2-1	KR76	11	2-3
KR27	39	1-3-1-3	KR77	15	3-1-3
KR28	11	1-3	KR78	16	3-1-2-1
KR29	11	1-3	KR79	6	1-2-3
KR30	31	1-3	KR80	8	2-3
KR31	10	1-2-3	KR81	6	3-1-2-3
KR32	21	3-2-1-2-3	KR82	8	3-1-3
KR33	28	3-1-2-3-2-1-3	KR83	20	1-2-3-2-3
KR34	11	1-2-3	KR84	11	1-3
KR35	13	1-3-1-3	KR85	10	1-2-3
KR36	10	1-3	KR86	17	3-1-2-3
KR37	41	3-1-2-3-2-3-1-3	KR87	15	2-1-3
KR38	13	3-1-3	KR88	28	1-2-3
KR39	32	3-2-1-2-1-3	KR89	12	3-1-3
KR40	42	3-1-3-1-2-3	KR90	21	1-2-3
KR41	16	2-1-2-3	KR91	27	1-2-3
KR42	31	1-2-3	KR92	30	1-3
KR43	16	1-3	KR93	29	3-1-2-3
KR44	17	1-3	KR94	20	1-2-3
KR45	17	1	KR95	14	1-3-2-3
KR46	23	3-2-3	KR96	42	1-3-1-3
KR47	24	1-3-2-3	KR97	15	1-2-3

KR48	15	3-1-3	KR98	20	1-3-2-3
KR49	15	1-2-3	KR99	30	3
KR50	29	1-3-1-2-3	KR100	11	3-1-3
문장수 평균		18.86			

논문번호	문장수	구조	논문번호	문장수	구조
JP1	20	1-2-3	JP51	17	1-2-3
JP2	16	1-3-1-2-3	JP52	20	1-2-3-1-2-3
JP3	13	1-2-3	JP53	11	1-2-3
JP4	6	1-2-3	JP54	15	1-3
JP5	10	1-3	JP55	4	1-2-3
JP6	5	3-1-2-3	JP56	12	3-1-2
JP7	8	1-2-3	JP57	7	1-2-3
JP8	8	1-2-3	JP58	8	1-2-3
JP9	9	1-3	JP59	11	2-3-1-2-3
JP10	19	1-3-2-3	JP60	7	1-3
JP11	16	2-3	JP61	11	1-2-3
JP12	5	2-3	JP62	14	1-2-3
JP13	19	2-3-1-2-3	JP63	5	2
JP14	7	1-2-1-2-3	JP64	14	1-2-3
JP15	8	3-2-3	JP65	11	1-3
JP16	9	2-3	JP66	14	1-3
JP17	15	3-1-3	JP67	8	1-2-3
JP18	8	2-3	JP68	9	1-2-3
JP19	18	1-3	JP69	10	1-2-3
JP20	14	1-2-3	JP70	7	1-3
JP21	14	1-2-3-1-3	JP71	5	1-2-3
JP22	6	2-3	JP72	10	1-2-3
JP23	21	1-3-2-3	JP73	13	1-2-3
JP24	18	1-3-2-3	JP74	17	1-2-3-2-3
JP25	6	1-2-3	JP75	18	1-3-2
JP26	13	1-3	JP76	9	1-2-3
JP27	8	1-2-1-3	JP77	17	1-2-3-2-3
JP28	17	1-3-2-3	JP78	22	1-2-3
JP29	8	1-2-1-2	JP79	11	1-2-3
JP30	18	1-3-2-3	JP80	5	3-1-3
JP31	8	1-2-3	JP81	5	3
JP32	6	1-3	JP82	14	3-2-3
JP33	21	1-2-1-2-3-1-2-3	JP83	27	3-1-3
JP34	14	3-1-2-1-3	JP84	25	3-1-2-3
JP35	8	1-3	JP85	11	1-3
JP36	15	3-1-2-3	JP86	3	1-2-3
JP37	8	1-3	JP87	3	1-3
JP38	6	2-1-3	JP88	2	3
JP39	29	1-2-3-2-3-1-3	JP89	12	1-2-3
JP40	24	1-2-3	JP90	16	1-2-3
JP41	7	3-2-3	JP91	12	1-3
JP42	9	1-2-3	JP92	3	1-3-2

JP43	4	1-2-3	JP93	18	1-2-3
JP44	11	1-2-3	JP94	19	1-3-1-3
JP45	7	1-3	JP95	29	1-2-1
JP46	14	2-3	JP96	4	1-3
JP47	17	1-3-2-3	JP97	12	3-1-2-3
JP48	10	1-2-3	JP98	7	1-2-3
JP49	19	1-2-3	JP99	8	1-3
JP50	15	1-3	JP100	18	1-2-1-2-3
문장수 평균		12.04			

<부록2> 조사 대상 논문 리스트

NO.	잡지명	출판년도	저자	제목
1	국어학	2019	이진호	자동적 교체는 항상 규칙적 교체인가?
2	국어학	2019	박소영	한국어 독립성분과 화용 정보의 통사구조 표상
3	국어학	2019	김지숙	바람 명칭 하늬에 대한 재고찰 - 동해안을 중심으로 -
4	국어학	2019	소신애	음운변화의 흔적에 대하여 - Δ>θ를 중심으로 -
5	국어학	2019	안소진	관용표현의 연상 표현에 대한 연구- 그림의 떡의 경우, 단어구와의 비교를 통한 고찰 -
6	국어학	2019	이상훈	선조대중간본《續三綱行實圖》의 국어학적 연구
7	국어학	2019	문현수	“소망”과“예정”의 어말어미 ‘-곳’과 그 변천 과정에 대하여
8	국어학	2019	홍은영	국어 폐쇄음의 지속성 동화와 마찰음화
9	국어학	2019	최경봉	구문과 어휘의미의 상관성 고찰
10	국어학	2019	김윤신	구문의 구조와 의미 - 논항 교체 구문을 중심으로-
11	국어학	2019	김진웅	구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론
12	국어학	2018	곽중구	漢字語(方言) 속의特異 漢字音 - 동북방언을 중심으로-
13	국어학	2018	정우영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의 ‘병서행’ 복원에 대한 재론
14	국어학	2018	김봉국	동음어의 유형에 대한 종합적 고찰
15	국어학	2018	문숙영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접속부사의 의미기능
16	국어학	2018	하영우 김민국	접속문의 의미통사 구조와 운율 실현 양상 - 연결어미 -고 접속문을 중심으로 -
17	국어학	2018	김혜영	부사격 조사 (으)로의 특수한 용법에 대하여
18	국어학	2018	도재학	두려움의 개념과 경계 형식의 문법 - 한국어 어미 -을라, -을세라를 중심으로 -
19	국어학	2018	송재목	-단다형 어미의 형성 - 인용표지 -고의 생성과 관련하여 -
20	국어학	2018	목정수	서술절 설정에 대한 재론 - 서술절 개념 비판에서 쪼개진 목적어 유형 정립까지 -
21	국어학	2018	이선영	외래어 신어의 몇 가지 양상
22	국어학	2018	조태린	언어 예절에 대한 언어 정책적 개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23	국어학	2018	오규환	의존 명사 짓/거의 조사 결합형과 관련한 몇 문제
24	국어학	2018	안영희	언어접속으로 보는 한자음의 성격과 분류
25	국어학	2018	서반석	결과의 비접속 부사 연구 - 결국, 끝내, 드디어, 마침내를 중심으로 -
26	국어학	2018	송기중	국어 모음체계의 조음음성학적 검토
27	국어학	2018	황화상	접사의 지배적 기능에 대하여 - 접사 결합에 대한 파생어 중심의 이해 -
28	국어학	2018	이금희	중결어미와 보조사 미는 결합형 연결 표현에 대하여 - -지마는, -다마는, -(으)까미는 류 중심으로 -
29	국어학	2018	조경순	NP1이 NP2 V고 싶다 구문의 구성과 NP2 조사 교체연구
30	국어학	2018	정한테로	한국수어의 단어 형성 - 사람 관련 명사를 중심으로 -
31	국어학	2018	차익중	중세한국한자음 ‘ㄱ~ㄱ’, ‘ㄷ~ㄷ’ 형에 대하여 -遇攝 魚韻의 ‘ㅣ’ 덧남 변칙음을 중심으로 -
32	국어학	2018	김천학	보조용언 -어 있-과 상에 대한 연구

33	국어학	2018	박정순	‘ㄴ’의 변이와 단모음 /e/의 형성에 대하여
34	국어학	2018	장경희	공간 관점에서 본 한국어 문법 형태소 -느-와 -더-
35	국어학	2018	노명희	임시어의 특성과 유형
36	국어학	2018	이정훈	조각문의 형성 방식과 다중 조각문
37	국어학	2018	박재연	-겠-과 -을 것-의 비대립 환경과 대립 환경
38	국어학	2018	신성철	두음법칙의 통시적 고찰
39	국어학	2018	오승은	-겠-과의 은유적 관계에서 본 -을게의 미래성과 양태적 의미
40	국어학	2018	손혜옥	한국어에서 내면화 의미의 존재 양상
41	국어학	2018	정경재	{있다}의 활용 양상 변화 고찰
42	국어학	2018	백채원	통사의미적 특성이 유사한 어기와 피동사의 공존
43	국어학	2018	유소연	어으 고모음화의 발생에 대하여-송병필가 인간과 여소학언해를 중심으로 -
44	국어학	2018	김현	공시 음운론과 음성학
45	국어학	2018	신승용	통시 음운론과 음성학
46	국어학	2018	양승임	단모음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어교육학과 음성음운론의 접점에서 -
47	국어학	2017	곽충구	동북방언에 잔존한 주통구스어와 몽골어 차용어
48	국어학	2017	문숙영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것 명사절
49	국어학	2017	송정근	한국어 파생 형용사의 의미
50	국어학	2017	박소영 김도훈	한국어 주다 수혜 구문의 통사론
51	국어학	2017	이영제	기능동사 개념의 의의와 기능요소적 특성에 의한 단어 분류
52	국어학	2017	김한별	안동 지역 방언어의 음운 변화
53	국어학	2017	송미영	초간본 초학언문의 표기와 음운 현상 고찰
54	국어학	2017	최윤지	한국어와 영어의 비표준적 준분열문 대조 연구
55	국어학	2017	남풍현	<怨歌>의解讀
56	국어학	2017	조항범	쭈박, 함박, 대박의 어원에 대하여
57	국어학	2017	유현경	한국어 용언의 인칭 제약에 대한 연구
58	국어학	2017	윤석민	한국수어(KSL) 연구의 필요성과 전망
59	국어학	2017	정한대로	신어의 삶에 관한 탐색 - 2002년 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 -
60	국어학	2017	최성규	명사형 어미 -의 형성 과정 탐색
61	국어학	2017	김정인	15세기 국어 N1+N2 구성 속 사이시옷의 정체성과 관련한 제문제
62	국어학	2017	한영균	《土子須知》《經傳集說》《公私恒用錄》의비교연구
63	국어학	2017	문금현	한국어 공손성 표현의 생성 유형별 특징 - 공손성의 강도와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
64	국어학	2017	이홍식 이은경	교체의 분류에 대하여
65	국어학	2017	임동훈	한국어의 장소 표시 방법들
66	국어학	2017	김현	국어 활용의 전이 양상
67	국어학	2017	이규호	의문사와 부정사의 의미와 용법
68	국어학	2017	엄태경 신중진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통합 -수학,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
69	국어학	2017	김태인	부사어 ‘잘’의 몇몇 쓰임에 대한 설명
70	국어학	2017	최경봉	조선총독부의 편찬 맥락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71	국어학	2017	장윤희	중세 한국어 파생동사 ‘수스위리다’의 형태론
72	국어학	2017	박소영	한국어 동사구 대용의 통사론 - 그리하다와 그러다를 중심으로 -
73	국어학	2017	이금희	한국어에 나타나는 문법화와 어휘화 현상에 대하여
74	국어학	2017	김전학	어휘상 유형에 따른 -있-의 결합 양상 고찰
75	국어학	2017	김민국	‘에서’ 주어의 통사와 의미
76	국어학	2017	서반석	접속부사어 ‘이때/그때’ 연구
77	국어학	2017	김양진	한국어의 형태와 형태소
78	국어학	2017	이선용 오규환	형태소의 식별과 분류

79	국어학	2017	배주채	교체의 개념과 조건
80	국어학	2017	김유범	이형태의 성격과 이형태교체의 유형
81	국어학	2017	최형용	단어 형성과 형태소
82	국어학	2016	서태룡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와 감탄사 통용
83	국어학	2016	정우영	훈민정음 초성 제자원리의 '이체자' 관련 문제점 분석
84	국어학	2016	김주원	세계 여러 문자의 모음 표기 양상과 훈민정음의 모음자
85	국어학	2016	노명희	속담의 구성적 특징과 변이 양상
86	국어학	2016	이영경	소학언해의 한 필사본에 대하여 -窮儒寒士의『소학』학습과그언어사용양상 -
87	국어학	2016	장소원 김혜영	구의 개념 정립과 그 분류
88	국어학	2016	최형용 김혜지	구성적 개념에 따른 사이시옷의 실현과 비실현
89	국어학	2016	신은수	15세기 'V아디다' 기원의 합성어 '녹아지다'
90	국어학	2016	김한별	경남 방언의/ㅅ/ 약화 과정에 대하여
91	국어학	2016	김태우	역문법화에 대하여 - 문법화와의 비교와 그 기제를 중심으로 -
92	국어학	2016	박병철	淸風府 洞里名에 관한 歴史的 考察 -현재 청풍면으로 편성된邑內面, 近西面, 水下面 지역을 중심으로 -
93	국어학	2016	이은경	안학의《중등교육대한문법》(1910)에대하여
94	국어학	2016	조태린	성문화된 규정 중심의 표준어 정책 비판에 대한 오해와 재론
95	국어학	2016	김지오	석독구결 구문의 의미와 논항구조
96	국어학	2016	정한테로	변안소설 쌍우루 한자 병기 어휘의 사전 등재- 계열의 한영자년을 중심으로 -
97	국어학	2016	위국봉	中世韓國漢字音과中古 및 근대 閩方言音韻의 대조 고찰
98	국어학	2016	최윤지	구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어떤 통사구성에 대하여 : 준분열문
99	국어학	2016	우순조	한국어 차등비교구문에서의 더와 덜의 분포 연구
100	국어학	2016	백재원	중세한국어 피동 표지의 다의성과 그 변화

NO.	잡지명	출판년도	저자	제목
1	日本語の研究	2018	塩田雄大	学歴と日本語意識
2	日本語の研究	2018	江口正	大分方言における動詞終止形の撥音化とその意味するところ
3	日本語の研究	2018	森勇太	近世後期西落本に見る行為指示表現の地域差
4	日本語の研究	2018	常盤智子	幕末明治期における日英対訳会話書の日本語
5	日本語の研究	2018	白川博之	日本語研究から日本語教育研究への越境
6	日本語の研究	2018	坂井晶子	明治・大正期の初等教育における句読法
7	日本語の研究	2018	菊地恵太	疊用符号を利用した略字体の成立と展開
8	日本語の研究	2018	酒井雅史 野間純平	大阪府八尾市方言の素材待遇形式ヤルの機能
9	日本語の研究	2017	中俣尚己	接続助詞の前接語に見られる品詞の偏り
10	日本語の研究	2010	森勇太	行為指示表現の歴史的変遷
11	日本語の研究	2017	笹井香	レッテル貼り文という文
12	日本語の研究	2017	駒走昭二	ゴンザ資料におけるカス型動詞
13	日本語の研究	2017	松森晶子	九州二型体系の複合語アクセント型はなぜ中和するのか
14	日本語の研究	2017	富岡宏太	中古和文の助詞カン
15	日本語の研究	2017	川島拓馬	文末形式「模様だ」の成立と展開
16	日本語の研究	2017	山岡華菜子	京阪式アクセント地域における「らしい」のアクセント
17	日本語の研究	2017	蔡薰婕	スケール構造を用いた程度修飾・数量修飾の分析
18	日本語の研究	2017	松森晶子	北琉球におけるC系列2音節名詞の語頭音節の長音化
19	日本語の研究	2017	服部紀子	江戸期蘭語学における日本語の格理解
20	日本語の研究	2016	北崎勇帆	複合助詞「であれ」「にせよ」「にしる」の変遷
21	日本語の研究	2016	久保薫愛	鹿児島方言における過去否定形式の歴史
22	日本語の研究	2016	林直樹	音響的指標に基づく話者分類からみたあいまいアクセント

23	日本語の研究	2016	神永正史	変化の結果を表す「～てあり」の用法について
24	日本語の研究	2009	高木千恵	関西若年層の用いる同意要求の文末形式クナイについて
25	日本語の研究	2016	松本昂大	古代語の移動動詞と「起点」「経路」
26	日本語の研究	2016	原田走一郎	南琉球八重山黒島方言における二重有声摩擦音
27	日本語の研究	2016	三宅俊浩	可能動詞の成立
28	日本語の研究	2016	深津周太	「ちょっと」類連体表現の歴史
29	日本語の研究	2016	辻本桜介	主節主体の動きを表す動詞終止形に接続するトテについて
30	日本語の研究	2016	遠藤佳那子	黒川真頼の活用研究と草稿
31	日本語の研究	2016	衣畑智秀	係り結びと不定構文
32	日本語の研究	2016	森田耕平	動詞中止形の継続相の意味・機能
33	日本語の研究	2015	山口響史	補助動詞テモラウの機能拡張
34	日本語の研究	2015	堀川宗一郎	鎌倉時代における仮名文書の「とん」
35	日本語の研究	2015	内田智子	蘭学者の音声分析と五十音図
36	日本語の研究	2015	原田幸一	若年層の日常会話における「トイウカ」の使用
37	日本語の研究	2015	坂井美日	上方語における準体の歴史的変化
38	日本語の研究	2015	松岡千賀子	係助詞「ぞ」「なむ」「こそ」の平安時代における変遷
39	日本語の研究	2015	神永正史	中世末のテアル文にみられる完成の用法について
40	日本語の研究	2015	川瀬卓	副詞「どうぞ」の史的変遷
41	日本語の研究	2015	市村太郎	雑誌「太陽」「明六雑誌」における程度副詞類の使用状況と文体的傾向
42	日本語の研究	2015	田中牧郎	近代新漢語の基本語化における既存語との関係
43	日本語の研究	2015	庵功雄 張志剛	漢語サ変動詞に見る近代語と現代語
44	日本語の研究	2015	竹田晃子	国語調査委員会による音韻口語法取調の現代的価値
45	日本語の研究	2015	佐藤貴裕	節用集の辞書史的研究の現況と課題
46	日本語の研究	2015	平子達也	能登島諸方言におけるアクセントの変化
47	日本語の研究	2014	富岡宏太	中古和文における体言下接の終助詞カナ・ヤ
48	日本語の研究	2014	東条佳奈	名詞型助数詞の類型
49	日本語の研究	2014	山田昇平	「言便」名義考
50	日本語の研究	2014	銭谷真人	『横浜毎日新聞』における仮名字体および仮名文字遣い
51	日本語の研究	2018	竹村明日香	謄伝書における五十音図
52	日本語の研究	2014	岡田一祐	明治検定期読本における平仮名字体
53	日本語の研究	2019	上林葵	関西方言における終助詞的断定辞「ジャ」の機能
54	日本語の研究	2014	池上尚	水くさいの意味変化
55	日本語の研究	2014	毛利正守	「変体漢文」の研究史と「倭(やまと)文体」
56	日本語の研究	2014	田中牧郎 山元啓史	『今昔物語集』と『宇治拾遺物語』の同文説話における語の対応
57	日本語の研究	2014	張愚	「むざん」の語義変化
58	日本語の研究	2013	吉田永弘	「る・らる」における肯定可能の展開
59	日本語の研究	2013	山下真里	「銭」の異体字「セン」の盛衰とその要因
60	日本語の研究	2013	小木曾智信	中古仮名文学作品の形態素解析
61	日本語の研究	2013	遠藤佳那子	近世後期の活用研究とテニヲハ論における命令形
62	日本語の研究	2013	森勇太	近世上方における連用形命令の成立
63	日本語の研究	2013	櫻井豪人	『和蘭字彙』電子テキスト化による『英和对訳袖珍辞書』初版の訳語の研究
64	日本語の研究	2013	小西いづみ 井上優	富山県呉西地方における尊敬形「～テヤ」
65	日本語の研究	2013	小柳智一	たましみをいれへきてには
66	日本語の研究	2013	竹村明日香	九州方言エ段音節の再検討
67	日本語の研究	2013	平子達也	平安時代京都方言における下降調に関する試論
68	日本語の研究	2012	村井宏栄	三巻本『色葉字類抄』における「作」注記について

69	日本語の研究	2012	村山実和子	接尾辞「クロシイ」考
70	日本語の研究	2012	小川俊輔	九州地方における「天国」の受容史
71	日本語の研究	2012	林直樹	東京東北部のアクセント
72	日本語の研究	2012	平塚雄亮 原田走一郎	鹿児島県北薩方言の文末詞セン
73	日本語の研究	2012	久保蘭愛	ロシア資料にみる18世紀前半鹿児島方言の「テアル」「テオル」
74	日本語の研究	2012	山本佐和子	「ツベイ」と「ツベシイ」
75	日本語の研究	2012	鳴海伸一	程度の意味・評価の意味の発生
76	日本語の研究	2012	澤崎文	万葉仮名の字義を意識させない字母選択
77	日本語の研究	2011	中本謙	p音再考
78	日本語の研究	2019	村山実和子	接尾辞「ハシ(ワシイ)」の変遷
79	日本語の研究	2019	松倉昂平	福井県北潟方言の後部3拍複合名詞のアクセント
80	日本語の研究	2011	西岡敏	竹富方言の敬語補助動詞と対者敬語的終助詞
81	日本語の研究	2019	大江元貴	形容詞基本形反復文の談話的・統語的特徴
82	日本語の研究	2011	新里瑠美子 レオン.A.セラフィム	gaの係り結びの仮説と検証
83	日本語の研究	2011	かりまたし げひさ	琉球方言の焦点化助辞と文の通達的なタイプ
84	日本語の研究	2011	田窪行則	危機言語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の方法としての電子博物館作成の試み
85	日本語の研究	2011	間宮厚司	言語資料としての『おもろさうし』
86	日本語の研究	2011	櫻井豪人	『英和对訳袖珍辞書』初版草稿の諸相と蘭書の利用
87	日本語の研究	2011	岡崎和夫	中世前期の日本語史料における暦日語彙-「ひついで」と「ひなみ」と「ひがら」についての基礎的検証-
88	日本語の研究	2011	野田大志	[他動詞連用形+具体名詞]型複合名詞の意味形成
89	日本語の研究	2011	森勇太	申し出表現の歴史的変遷-謙譲語と与益表現の相互関係の観点から-
90	日本語の研究	2011	川瀬卓	叙法副詞「なにも」の成立
91	日本語の研究	2011	毛利正守	萬葉集の字余り-音韻現象と唱詠法による現象との間-
92	日本語の研究	2011	栗田岳	「しづ心なく花のちるらむ」-ム系助動詞と「設想」-
93	日本語の研究	2010	衣畑智秀 岩田美穂	名詞句位置の力の歴史
94	日本語の研究	2010	矢島正浩	上方・大阪語における接続詞的用法ソレナラ類の推移
95	日本語の研究	2010	井上史雄	「お」の使い分けにみる美化語の循環過程
96	日本語の研究	2010	丹羽哲也	相対補充連体修飾の構造-準体節との対応-
97	日本語の研究	2010	彦坂佳宣	「寒いけれども」(『方言文法全国地図』)の解釈-逆接確定表現の言語地理学的考察-
98	日本語の研究	2010	深津周太	近世初期における指示詞「これ」の感動詞化
99	日本語の研究	2010	横山詔一 真田治子	言語の生涯習得モデルによる共通語化予測
100	日本語の研究	2010	清地ゆき子	恋愛用語「三角関係」と三角恋愛の成立と定着

 <要旨>

한일 학술논문 서론의 텍스트 구조 분석

- 국어학 분야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

임정아

본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일본어 모어 화자가 작성한 학술 논문의 서론의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 분석 자료로 한국의 국어학회가 발간하는 ‘국어학’ 학술지 중 학술 논문 100편을 선정하여 그 서론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 학술 논문은 일본의 ‘일본어 학회’가 발간하고 있는 ‘일본어 연구’에서 총 100편의 학술 논문을 수집하여 서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추출한 학술 논문의 서론을 Swales(1990)의 CARS 모형을 수정하여 작성한 틀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일 학술 논문의 서론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 논문의 연구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이동 마디(Move 3)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n analysis of the text structure of the introduction
in Korean-Japanese academic articles

Lim, Jeong-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clarify difference in the structure of introduction between Korean native speakers and Japanese native speakers. As analytical materials, 100 Korean academic articles were selected from the “Korean Language” journals published by the Korean National Language Society, and only the introduction was analyzed. As for Japanese academic articles, 100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Study of Japanese” published by the Japanes Society of Japan and only the introduction was analyzed. The collected introductions were analyzed based on a modified version of the CARS model of Swales(1990). The study shows some differences of Korean and Japanes introduction. In particular, it showed the most differences in Move 3, which included references to the stud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teaching Korean and Japanese to analyzing and presenting th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the introduction of articles in the two languages.